

지역 소식통

김제자봉센터, 맞춤형 재능나눔 봉사활동 펼쳐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윤권)와 교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영복)는 지난달 31일, 교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와 교원동(행정복지센터,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푸드뱅크(점심식사), 문화공연,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공예체험 활동, 건강상담, 스포츠캐이핑, 다육화분제작, 인생사진, 네일아트 등 다양한 재능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푸드뱅크 시 필요한 이동식식탁 및 식기일체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에서 지원하며 아름다운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치매극복 홍보부스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치매극복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지난달 27일 봉남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령 느티나무 음악회에 이어 31일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2023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행사에 맞춰 교원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치매극복 홍보부스를 설치해 '치매예방수칙 3·3·3' 및 '치매바로알기'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정성주 시장은 "치매인식개선은 지역사회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기업하기 좋은 김제 조성 박차

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으로 기존부지 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 중기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 기금운용범위 기금조성액의 7배로 확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제273회 김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기존부지 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300억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을 2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 △대규모 물류·도·소매업 투자유치 지원(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50명 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신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외

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해 우수기업의 유치 및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범위를 기금조성액의 5배(500억 원)에서 7배(420억원)로 확대해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 다수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창년기업, 여성기업 및 김제시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을 기존 4%에서 최대 5%까지 우대하는 등 관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김제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영, 기술 등 각종 지원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공동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축구·수소 '윈윈'... 완주-현대차, 토지 교환

상생·발전 협약 체결... 전북현대 클럽하우스 인접 울소리 부지-수소산단 둔산리 부지 협의

완주군이 지난달 31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주) 전북현대모터스FC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토지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현대자동차(주)는 완주군 소유의 울소리 부지를 토지와 현대자동차(주) 소유의 부지를 둔산리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을 통해 군과 현대자동차(주) 전북현대모터스FC는 완주군의 수소산업 및 축구메카사업 수소를 위해 상호 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완주군이 지난달 31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주) 전북현대모터스FC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토지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한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원욱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완주군과 현대자동차(주) 전북현대모터스FC 상호 협력체계 강화

로 축구메카사업 협력 강화 및 수소 관련 사업 확장 부지 확보 등에서 윈윈(WIN-WIN)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알코올, 멈추면 건강 시작'... 김제시, 음주폐해 예방의 달 절주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알코올, 멈추면 #건강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김제시 평생학습 한마당 건강부스에서 절주 퀴즈 이벤트, 음주고글키트 체험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절주의 필요성과 음주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이동센터에서 아바 건강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김제시 평생학습 한마당 건강부스에서 절주 퀴즈 이벤트, 음주고글키트 체험 등을

그 밖에 △워크숍 앱 음주폐해 예방 걷기 챌린지 △전국 연합형 더(The)건강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 △'생활 속 절주 수칙' 전광판 송출 △시청 금연상담실·금연캠프·경로당 음주폐해 예방 교육 등 다채로운 절주 캠페인을 실시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간선수로 건설 100주년 역사·문화·생태자원 담아

고산다큐멘터리팀 제작·완주미디어센터 촬영 지원 '호남평야를 키워낸 물의 길' 인생다큐영상공모 선정

고산다큐멘터리팀이 제작하고 완주미디어센터가 촬영 지원한 '호남평야를 키워낸 물의 길, 대간선수로(이하 대간선수로, 감독 이명환) 작품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인생다큐영상공모전에 선정됐다.



완주군에 따르면 인생다큐영상공모전은 지역 인문 콘텐츠 발굴과 인문 지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 필름포럼에서 출품된 430개의 작품 중 최종 선정된 30편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대간선수로는 완주군 고산면 어우보에서 출발해 익산시를 거쳐 군산시 옥구저수지까지 63km를 흐르는 큰 수로로 올해 건설 100주년을 맞았다.

고산다큐멘터리팀은 이 물길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 등을 영상에 담았다.

대간선수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왕중 김장근 김태휘, 손우나, 이재형 조영호 씨가 이 여정을 함께했고 서예작가인 김규성 완주군의회원은 대간선수로의 제목을 재능 기부했다.

작품을 연출한 이명환 감독은 "대간선수로는 지역의 근현대사와 농업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근대농업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조차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작품이 그 가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종환 완주미디어센터장은 "대간선수로는 워낙 방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 다큐멘터리 한 편에 그 내용을 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작품과는 별개로 미디어센터 차원에서 기록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문 다큐 '대간선수로'는 연말 완주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2023년 농한기영화제'에서 재상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완주미디어센터(063-282-1886)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알릴

관공서·공공기관·은행 등에 리플릿·소책자 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예정에 따라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공공이 밀집하는 장소 등 확대시행을 알리는 리플릿과 소책자를 배부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법 시행 2년째인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민약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업종별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및 작업 전 안전 교육 활동 점검표 제공 등은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063-280-2782, 2783)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용진읍 상삼지구·소양면 장평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완주군 용진읍 상삼지구 769필지, 50만 4,000㎡와 소양면 장평지구 414필지, 23만 8,000㎡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됐다.

완주군은 지난달 30일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용진읍 상삼지구와 소양면

장평지구의 지적재조사 심의를 진행했다.

완주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1,188필지에 대한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